

축산소식*



■ 미 쇠고기 대형매장 시판 빈축



■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13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규탄집회를 열었다.



■ 한우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롯데마트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국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 일제히 미산 쇠고기가 시판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롯데마트가



전국 53개 매장에서 미산 쇠고기 판매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4개 매장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매장을 점거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감시단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함에 따라 중단됐던 수입이 한·미 FTA 강행추진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재개됐다”며 “비윤리적 상행위에 대해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않는 3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산 쇠고기 판매는 이날 호조를 보였다.

실제 13일 서울역점의 미산 쇠고기 매대 앞에는 짧은 판매시간 동안 100g에 1550원하는 미산 꽃등심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북적였다.

롯데마트측은 냉장 쇠고기는 10톤, 냉동 30톤





을 준비했으며 냉장 쇠고기는 하루 만에 소진됐다
며 판매가 중단된 4개 매장에서 판매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유통
업체 관계자들은 “롯데마트의 상황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매시기를 결정할 것”이
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장두향 기자 el1124@afnews.co.kr

[최종편집 : 2007/07/18]



■ 춘향전 패러디 우유 TV광고 “반응 좋네”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되는 등 초반부터 화제
얼마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하얀 우유에 대한 인지
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新춘향전’ 광고가 방송을
타자마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이달의 좋은 광고’에 선정되는 등

참신한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공익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국내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고전을 패러디한 새로운 TV
광고, ‘新 춘향전’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
동을 시작했다.

기존의 하얀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광고는 우유의
성분이나 음용 효과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광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고전인 춘향전에 반전을 가해 1318 청소년세
대의 하얀 우유에 대한 흥미와 호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푸른 초원에서 그녀를 타고 있는 춘향
에게 향단은 귀한 보약인 우유를 권한다. 하지만 춘
향은 계속해서 우유를 거부하고 향단이 그 우유를
대신 마시게 된다. 시간이 흘러 과거에 급제한 몽룡
은 춘향을 찾지만, 우유를 ‘마신 대로’ S라인의 늘
씬한 몸매와 뽀얀 피부를 ‘거둔’ 향단을 춘향으로
착각하게 된다. 향단과 몽룡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춘향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우유를 마시려고 젖소
의 젖을 짜는 등 갖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광고에서 우유 덕분에 몽룡의 사랑을 얻게 되
는 향단 역은 ‘뉴논스톱’, ‘폴하우스’ 등에서 청소년
들의 인기를 끌었고, 최근 화제의 드라마 ‘쩨의 전
쟁’에서 맹활약 중인 이영은이 맡았다.

이영은은 이번 광고를 통해 기존의 발달한 이미지
를 맘껏 뽐냈고, 조연으로 등장한 춘향이와 몽룡,
방자까지 독특한 캐릭터로 광고의 재미를 한껏 살
렸다는 평이다.

2007년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우유 소비 촉진

축산소식*

캠페인 슬로건 “Close to you”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를 늘 당신 가까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얀 우유가 보다 친근하고 사랑 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번 神 춘향전 편은 그 장기캠페인의 첫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 라이브뉴스 이경미 기자, a1@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7/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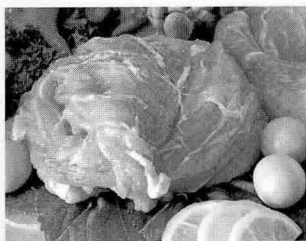


■ 돼지고기도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를

대한양돈협회, 보건복지부에 요구

보건복지부가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서 돼지고기를 제외 하자 양돈농가 및 관련단체가 크게 반발

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육류의 57%가 돼지고기인 상황에서 돼지고기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또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돼지고기는 무려 21만여 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44%인 9만2,000여 톤이 삼겹살”이라며 “특히 국내 삼겹살 생산량이 14만3,000여 톤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음식점 가운데 30%가량이 수입 삼겹살을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돈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수입육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돼지고기를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을 도외시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정당한 수취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돼지고기를 포함시켜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최종편집 : 2007/07/11]



■ 산란계 사육수수 감축 박차

양계협회 “불황타개(不況打開) 모색”

채란농가들이 산란계 사육수수 감축 운동에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에 따르면 6월 현재 산란 실용계 사육수수가 4350만수로 적정사육수수(3650



만수)를 16%나 초과한 상태로 계란 과잉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채란업계의 불황타개를 위한 산란계 사육수수 감축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현재 계란가격이 87원(개당, 특란기준)으로 생산비(89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D/C 폭까지 늘어나 실제 거래 가격은 생산비의 70%대에 머물고 있고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선웅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은 “채란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아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 사업도 펼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과잉된 산란계 사육수수를 줄이기 위해 노계군의 조기도태, 산란실용계 적정수수 입식, 강제환우 자제 등 감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축산 이경희 기자 [최종편집 : 2007/07/16]



■ 양봉산업 대체밀원수 개발 시급

아까시나무 벌꿀 생산량 감소...현장설명회에서 강조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대체 밀원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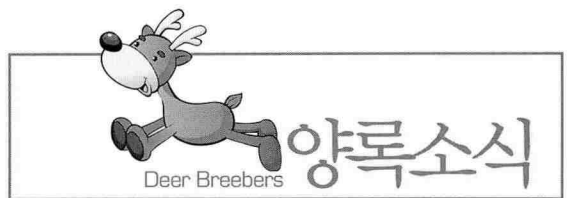
국립산림과학원과 농업과학기술원은 수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에서 지난달 25일 '아까시나무 쇠퇴에 따른 대체밀원 조성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근 황화현상으로 급격

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만한 밀원수 개발의 필요성과 양봉산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대체 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헛개나무의 육묘현장을 견학했다.

전기현 양봉협회장은 “국내 벌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까시 벌꿀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대체밀원의 개발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설명회는 양봉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상균 한국양봉농협장 및 경북칠곡의 양봉연구회 회원농가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최종편집 : 2007/06/29]



■ 녹용 도난사고 '경계령'

절각철 농장 관리 주의해야...

절각철을 맞아 발생하고 있는 녹용 절도에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광명시의 한 농장에서 녹용 절도 사건이 발생해 약 65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매년 녹용을 절각하는 시기에 이 같은 도난이 발생하고 있고 농장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절도 기

축산소식*

회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농가 스스로 경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백승언 승천사슴농장주는 “절각해 놓은 녹용뿐만 아니라 우수사슴대회에 출전시킬 사슴의 녹용을 절각해가면서 2마리의 사슴까지 죽여 피해액이 6500만원에 달한다”면서 “녹용을 절각해 간 만큼 농장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같은 절각철에 도난 피해를 입으면 일년 생계가 막막해진다”면서 “사슴까지 잃게 되면 앞으로의 생계까지 막막해지니 농가들은 절각철에 농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광선 양록협회 부장은 “절각철에는 농가들에게 농장 관리에 주의할 것을 알리고 있다”면서 “사슴농장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각된 녹용 관리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축산 이경희 기자 [최종편집 : 2007/06/14]

기타소식

Others News

■ KISTOCK 2007 '완전 매진'

유료부스 625개 최종 확정, 680개 부스 신청 쇄도
KISTOCK 2007이 9월 12-14일 개최를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유료 부스 625개에 680개가 신청하는 등 벌써부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대회장 남호경)는 축산경

영체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유료부스 625개를 최종 확정하고 24일 서울무역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참가 경영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스 배치와 부대시설 등 향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한다. 최종 확정된 참가 업체는 축산 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련 경영체의 참가가 가장 많은 100개 경영체 399부스(48.1%)이고 동물약품 분야가 31개 경영체 52개 부스(14.9%), 사료분야가 18개 경영체 83개 부스(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 참가 부스는 미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불가리아, 중국 등이 참가하며 총 23개 경영체 27개 부스이다. 옥외 전시장은 14개 경영체 52개부스, 축산 기관 및 단체 홍보관 15개 기관·단체 29개 부스, 기타 경영체가 7개 업체 12개 부스 규모이다.

전체 전시관은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 제3전시관 및 옥외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제1전시관과 제3전시관은 축산 기자재 관련 경영체와 축산 기관 및 단체 홍보관이, 제2전시관은 사료 및 동물약품, 해외 경영체로 구성되어 진다. 그 외 장비 시연 및 기타 장비는 옥외 전시관에 전시된다.

▶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최종편집 : 2007/07/17]

